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2월 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5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이 마치 감기처럼 치료되었습니다.”

- 박순금 -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후, 코로나에 걸리면 폐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여 저는 2월 19일에 미리 동네병원에서 폐렴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은 왼쪽 어깨 부위에서 밤새 열이 나고 아프더니, 다음 날 저녁에 머리를 감는데 왼쪽 턱 밑 목에 두 개의 멍울이 생겼습니다. 임파선이 부었나 보다 하고 예사롭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볼과 귀와 머리 쪽으로 올라가며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크게 놀라시며, 염증이거나 혹은 암일 수도 있다면서 얼른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에서 조직검사와 CT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혈액종’ 진단을 받고 혈액종양내과로 진료과목을 옮겼습니다.

그날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전해 듣고 저는 온 몸에서 힘이 쭉 빠지고 낮이 나간 것처럼 진료실을 걸어 나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초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살아온 것만 같아 제 자신이 부끄럽고 긍정적, 부정적 생각이 번갈아 뇌리에 스쳐 지나갈 때 결과를 묻는 남편의 전화가 와서 ‘나도 모른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4월 12일 주일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입원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낙심될 때 찬송가 431장 가사가 생각나서 찬송하였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친정 식구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교구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해외에 있던 딸이 대상포진에 걸려 몸이 아프고 입국하면 2주간 격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3개월 휴가를 내어 달려왔습니다.

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안타까워하시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저의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하도록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은 아직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많습니다. 마치 감기가 지나가듯이, 암을 낮게 해 주옵소서”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은 저는 병원에서 기도할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스크랩북 등을 챙겨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혈액학적, 열 체크, 엑스레이 촬영, 체질 등 기본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저는 치료의 모든 과정과 그때 그때의 결과를 기록하는 투병일기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에 검사를 위해 골수를 뽑는데 부분마취를 했음에도 겁이 나고 아파서 ‘시편 18편’ 복음찬송가(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과 겪으시는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오후에 CT 촬영을 하고 암세포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핵’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목 림프와 왼쪽 코까지 전이된 2기이며 앞으로 6번 항암을 하게 되고 치료될 확률은 60%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 본원에 보낸 골수검사 결과 만일 뇌와 척추에도 전이가 되었으면 3기 또는 4기로서 척추에도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있는 더

독한 약을 투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항암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밤 11시에 끝난다며 미리 먹는 약을 주셨습니다. 약을 먹고는 ‘내 몸의 상태와 치료에 꼭 맞는 약을 처방받아 몸에 해가 되지 않고 암세포만 사멸되게 해달라고, 항암주사와 면역촉진제가 큰 효과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차 항암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밤잠을 잘 자고 다음 날을 힘 있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신유의 은혜에 관한 성경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평소에 남편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날 가정예배에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묵상한 후 월요일기도회에서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시편 84:6,7) 한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한 상황에 꼭 맞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중에 형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이 물밀듯 저의 심령속에 파고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관한 말씀도 해주셔서 병이 낫는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가빴지만 딸의 도움을 받아 뒷산에 올라 산책을 하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공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자가면역을 위해 딸이 시댁에서 보내준 산나물 등으로 자연식품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의 기운 때문에 먹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자주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습니다. “①수시로 신유의 은혜와 기도응답에 관한 성경말씀을 암송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한다. ②의사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르고 끝까지 잘 참고 항암치료를 받는다. ③입에 쓰더라도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자연식품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④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서울대병원 본원의 골수검사 결과가 뒤늦게 나왔는데, 다행히도 정상으로 나와서 항암치료를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2차 항암은 5월 12일 화요일에 하고, 3주에 한 번씩 항암제를 투여하며 입원하거나 외래 등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여 집에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기로 하였습니다.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2차 항암을 마치자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부었습니다. 한창 코로나 팬데믹 중인데도 딸과 함께 남대문시장에 가서 가발과 두건을 샀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실 때면 딸과 함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면서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였습니다. “내 병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암세포는 다 사라졌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식탁에서도 먼저 음식을 양손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들이 제 몸에 항암제가 되어 암세포를 죽이고 제가 건강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먹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을 때마다 전화로 당회장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무척 바쁘실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부족해서 항암치료가 미뤄질 때도 있었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면 안심이 되었고 또한 곧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를 비롯한 친정 형제들이 가족 단독방에 우리 기독교 성화 등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며 힘내라고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겨우 3살, 5살인 손자와 손녀의 “할머니, 치료 잘 받고 오세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하는 동영상을 보니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중에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집으로 심방을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항암치료를 받기 전에,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항암치료 3번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의료진이 모두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새로 부임하신 교구장님이 심방 오셔서 전임 교구장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금 교구 성도님들이 어떻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26절과 27절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뇌와 골수에 전이가 되었는지를 검사한 다음에 4차 항암치료를 한다고 하였기에 저는 더 이상 전이와 재발이 되지 않고 치료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딸이 저를 돌본지 3개월이 되어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하고 직접 밥을 해먹기가 힘들다면서 한 달을 더 같이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테니 그만 돌아가고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딸은 6월 27일 토요일에 출국한 뒤로 아침 일찍 그날그날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묵상한 성경말씀과 기도문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기 전에 아직은 거동이 불편한 몸이지만 힘을 내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으면서 치료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차 항암 전에 목이 잠겨 말이 잘 안 나오고 열도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하였습니다.

3차 항암치료 후 7월 9일 목요일, 뇌와 골수에 전이가 되었을까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또 4차 항암치료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저의 진료 차례가 되어 의자에 무심코 앉았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네?”라고 되물었더니, “이것 보라”며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전에 사진은 이런데 지금 사진은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연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저에게 폐렴기가 약간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입원하여 4차 항암치료를 받은 다음에 퇴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찰실을 나와서 대기실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잊은 채 황홀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교구 전도사님에게 알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당회장 목사님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모든 암세포가 죽어 사라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의 가족과 친정식구와 저의 암투병을 알고 기도해 준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폐렴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으면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암세포가 다 사라졌는데도 6차까지 항암치료를 해야 하나요?”하고 여쭙었더니, “미세하나마 잔존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 없애기 위해 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이 써서 무엇을 먹어도 그 맛을 몰랐는데 처방해 준 입맛촉진제를 먹은 후에 입맛이 돌아와 그야말로 살 것 같았습니다.

폐렴 치료를 받고 항암을 4차까지 마친 후에 퇴원을 하고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가발을 쓰고 다초점렌즈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자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라보았습니다. 저의 투병 사실을 아신 분들은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제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9월 7일에 항암치료를 마치고 추적검사를 받으면서 면역력 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암 투병을 하는 환우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담력과 전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병실에서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말기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하고, 생활하시는 곳에 있는 우리 교회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신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무한한 기쁨으로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1권 (제4단원 :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제25과) 성령님의 명칭

- 본문 : 요한복음 14:16,17
- 요절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 찬송 : 171장(새찬송가 187장), 169장(새찬송가 182장)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명칭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①하나님의 신(삼상 10:10) ②하나님의 영(롬 8:14) ③그리스도의 영(롬 8:9) ④예수의 영(행 16:7) ⑤보혜사(요 14:16) ⑥성령(마 3:16) ⑦주의 영(행 8:39) ⑧성신(사 32:15) 등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 공과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성령님의 명칭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1. 성령

성경에 가장 자주 사용된 명칭으로 거룩하시고 성결한 영이신 성령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므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롬 15:16).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갈 5:16),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갈 5:22). 반면에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을 갖지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 정욕을 좇아 살면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될 뿐 아니라, 그러한 불결한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을 자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고전 3:16,17).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영원하신 성령’(히 9:14)이라고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 하나님의 영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둘 다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명칭 속에는 창조와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으며(창 1:1,2)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듯이 성령님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으로(요 3:5,6)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창조사역을 계속하시고 계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성도들의 죽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살리실 것입니다(롬 8:11).

3. 그리스도의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점과(행 2:33)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점에(요 14:26, 16:14) 기인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요 14:16)고 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

대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행 2:33). 그러므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행 2:38).

(2)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의 사역이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요 16:14).

성령님께서 죄인들의 어두운 마음에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의 빛을 비취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심으로서 오늘날도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3)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18-20)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언급된 말씀으로서 그 뜻인즉,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동시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언약하신 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는 말씀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보혜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요 15:26)라고 하심으로 처음으로 보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은 ‘부름받고 곁에서 도와주는 자’란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혜사’란 말은 재판정에서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고 곁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변호하고 탄원하고 위로와 권고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을 곤세게 하고 대적자를 대항하여 물리쳐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잠시 잠깐만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 14:16).

지금까지 성령님의 여러 가지 명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이토록 다양한 명칭이 존재함은 그만큼 성령님의 사역이 다채로우며 무한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심으로써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일임을 생각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영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신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